중국의 시장 연구 - 항아리형 인구 구조가 소비를 억제

중국에서 소비 확대는 최근 수년 동안의 주요 정책의 하나인데,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 개인 소비의 GDP에 대한 비율은 줄고 있다. 중국 증권보(中國證券報)의 보도에 의하면 어떤 전문가는 소비가 늘지 않는 요인에는 주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소득이 별로 더 이상 늘지 않으며, 주택을 구입하려고 소비를 억제하는 등의 현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항아리형의 인구 구성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학의 입장에서 분석하면, 고령자와 어린이는 순수한 소비자이다. 20~60세의 청ㆍ장년 인구는 소득을 저축으로 돌리고 만다. 또한 도시에서 일하는, 농촌으로부터의 이주자도 저축하는 경향이 크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 인구의 증가, 청년 인구의 증가, 도시 인구의 증가라는 3개 요소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저축률을 올리고, 경제 성장이 낮은 상태가 계속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적령 노동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는 데 따라, 아동 인구와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저축과 투자가 촉진됨으로써 경제가 성장하는 현상을 “인구 보너스”라고 한다. 이것이 중국에서 개인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고 있는 원인이다. 인구는 소비를 주도하여 결정짓는 역할을 갖고 있다. 인구의 규모, 구성과 소득 수준이 소비의 규모와 능력을 결정한다.

현재 중국 인구의 70% 이상이 노동 인구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소득이 지출을 웃돌고 있어, 이것이 경제의 고 성장에 대하여 소비가 늘지 못하고 있

는 이유가 되고 있다. 사실은 이런 종류의 높은 저축률은 바람직한 일이며, 높은 저축률은 투자율을 받쳐주는 것이므로, 인프레를 일으키는 일은 없다.

전문가는 미래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인구 보너스는 앞으로 5~15년 정도 계속될 것이다. 2010년이 되면 노동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 여전히 70% 내외의 수준을 지킬 것이다. 2020년 이후에는 고령화가 빨라져, 개혁 개방 초기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정년퇴직하고, 계속하여 애 하나만의 부모들이 정년을 맞게 된다. 그럼으로써 순수한 소비가 늘면서 저축률이 떨어지며, 개인 소비의 GDP에 대한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

어떤 전문가는 "앞으로 15년간 중국은 좋은 찬스를 맞을 것이다. 저축률이 높아서 아무리 투자하여도 인프레가 생길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투자를 충분히 하여 경제를 성장 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중국에는 다시 이와 같은 찬스가 오지 않을 것이다. 높은 저축률은 인구 구성이 바뀌는 과정에서 자연히 생긴 현상이다. 이 기회에 투자하지 않으면 모처럼의 찬스를 빤히 잘 알면서도 놓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